모든 중생은 고정됨이 없어서 그대로가 참선이며 화두이다

☞ 19면에서 계속

가 몇이며 잠수함이 몇이며 차가 몇이며, 비행기가 몇이며 속사포가 몇이며 총이 몇인가만 가지고 논의하기 때문에 균형을 잡지 못한다 이 소립니다.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데로 나오는 것, 일체 모든 살아가는 생활이 그대로 심성 과학이며 도며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우리가 앞으로 자라나는 애들을 키우면서 그 자라나는 애들이 또 주인이 되면서 일꾼이 되면서,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갖지 않고는 앞으로 더욱더 힘에 겨운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게 될 거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문제겠죠.

여러분도 지금 살아 있으면서 이 도리를 모르고 몸이 있을 때에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마 그 잠재의식 속에 들어 있는 대로 팔짝팔짝 뛸 겁니다. 나로서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근중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주간 법계의 문제도 그렇지마는 우리 앞에 닥쳐오는 문제를, 왜 이렇게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은 깊이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한생각에 가정을 이끌어 나가며, 내 몸을 이끌어 나가며, 사회를 이끌어 나가며, 국가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도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지금 균형을 잡아서 물바람이 칠 때는 바로 물바람으로 막아야 하고, 불바람이 칠 때는 불바람으로 막아야 하고, 흙바람이 불 때는 흙바람으로 막아야 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세계 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잘 이끌어 나가면 보이는 세계로 잘 이끌어지는 그런 도리를 정치하는 사람일수록 잘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잘못 끌고 가면 온 국민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니까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르기 때문인데, 어떤 사람은 똑똑히는 말은 안 하겠지만 싸움을 안 하고도 손만 닿는 사람이 있다면 '손만 닿게 해라, 그냥 먹겠다.' 이러한 문제도 당면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잘못된 개념과 어떠한 사람이 잘못한다 나무랄 그런 시대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하셔야 될 줄 압니다. 앞으로 몇 해가 지나서도 잘못한다면 '너는 잘못하니까, 밟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시대라고 봅니다. 그러한 반면에 똑똑히 말해서 내가 왜 이런 말을 여기서 하며, 여기서 이런 말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귀정을 짓는 그러한 도리가 바로 그 뜻입니다. 사람이 못하면 그 도리를 아는 사람이 해야죠.

이 세상에는 세계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여기처럼 이렇게 방치해 둔, 아마 요런 조그마한 나라도 없을 겁니다. 딴 데서 어떠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역사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불 지르고 죽이고 돌멩이질 하고 태우고 그렇게 데모하는 거는, 아마 그렇게 과격하게 하는 거는 못 봤을 겁니다. 이것이 그 애들 잘못이 아니라 이건 국난입니다. 이 모두를 우리가 겸해서 말하는 겁니다. 어느 자식이 내 자식 아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남편 아님이 어디 있으며 정치를 하는 사람도 내 아버지이며 내 오빠며, 내 부모며 바로 내 형제인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어디를 나쁘다 어디를 좋다 하겠습니까? 좋다 나쁘다 하고 싸울 때가 따로 있지….

월남에서도 많은 경험을 얻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얼마나 집을 잃고 전세방도 없이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셋방으로써 근근득생하다가 겨우, 지금도 제한을 받지 않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유스럽게 움죽거릴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지금 배고파서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디다. 너무 방치해서, 너무 방탕해서, 너무 이론이 많고 겨워서 말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그것을 왜 생각하느냐? 지금 시대에 앞으로 나아가지만 그래도 반드시 참고적으로 밑거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치인도 아니요,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한자릴 하고 있는 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데 뒤에서는 뒷받침을 했습니다. 도교로써, 도심으로써. 그래서 얘깁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한생각으로서 합심해서 부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내 형제, 내 국민과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그것이 바로 자비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물결치는 것은 능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는 한생각에 의해서, 어디서 오더라도 어떻게 막아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한 계단을 내려서 이보경계라고, 이름해서 그것도 합니다. 그건 보살행이라고 봅니다. 그럴 때에 보살행은 이 모든 일체가 평등함으로써 주처의 뜻을 모두 한마음으로서 귀결짓는 반면에 아마도…, 예전에 6·25 났을 때에 밀고 들어간 맥아더 장군이나 또는 박 대통령 또는 이승만 대통령 이런 분들도 역시 그때에 일본 사람들하고 싸우느라고 그 군부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결사단이 정해지고 그래서 영령들이 지금도 역력히 살아 있다고 봅니다. 그 의식이 남아 있고. 의식이 남아 또 부산이나 지금 군묘지나 우리가 급할 때는 때에 따라서 그렇게 귀결을 짓고 보이지 않는 데서 물결칠 때는 보이지 않는 데서 물결을 일으키는, 즉 보이지 않는 군부를 일으키는 그런 이보경계도 있다 합니다. "있다 합니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배우고 가는 도중에 부처가 된다, 법신이 된다 하기 이전에 행을 그대로 하는 것이 보살의 도리요, 사람의 도리요, 바로 말 한마디 한마디 법의 뜻을 그대로 응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보살의 행을 한다' 고 한다면 그 얼마나 어려운가. 내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은 잠재의식 속에서 각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니 바로 그것을 놔야 된다. 밑 빠진 두멍에 놔야 된다. 자기를 믿지 못하고 누구를 믿느냐. 만약에 자기 주먹이 마음이라면 자기 주먹을 믿어라 이거야, 자기 주먹을 믿어! 이 손가락이 왜 다섯 개가 됐느냐? 오온이 한 주먹에 들어 있어. 십선이 한마음에 들어 있고 팔정도가 바로 사무 사유, 이 세상 우주의 섭리까지도 전부 한꺼번에 들었거든.

그러니 여러분이 이 공부를 공부라고 하기 이전에 여러분은 저한테 와서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하시고만, 때에 따라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얘기하고 인사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왜? 열 가지든 만 가지든 그 속에서 다 해결이 나는 거니까. 듣는 사람도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한마음으로서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기 때문에 들어만 줘도, 우리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 더 빠르고 그 뜻도 알게 돼요. 여러분이 행을 해 나가는 데도 물론 그대로가 법이라고 하고 여여하다고 하지만 첫째, 놔야 된다, 모든 것을. 모든 소유를 놓는다. 둘째는 모든 생활이 참선이며 일체 한군데로 들고 나는 것이 전부 화두며, 바로 참선이다 이겁니다.

>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국민을 이끌어 나가려면**
>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균등하게 균형을 잡아서**
> **마음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일체 중생이 다 지금 그 뜻을 안다면 여여하게, 보이지 않는 데서나 보이는 데서나 균형을 잡아서 스스로 해 나가게 돼 있어요. 진짜로 믿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나가는 데는 항상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스님네들이든지 누굴 막론해 놓고, 괜히 조그마한 거 큰 거 가지고 성내지 않는다. 크고 작은 것을 얕잡아 보지 않는다. 또는 말을 할 때, 성을 내고 와락와락 말을 할 땐 벌써 얼굴상이 달라져. 웃으면서 조용조용히 얘기할 때, 할 말을 다 하면서도 화합이 되고 그것은 싸움이 되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이 모습을 가지고 얼마 살지 못하는 이런 판국에 왜 그렇게 왈가왈부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도 하대해서 하지 말고 생각조차도 언제나 그렇게 해 나가야 하는 거죠. 보살행이라는 것이 하도 말이 많아서, 그래서 이것을 끄트머리로 '모든 소유를 밑 빠진 두멍에 놓는다' 해야죠.

모든 중생은 고정됨이 없이 평등하여서 그대로 축이며 참선이며 화두다. 일체가 고정됨이 없어서 공덕 계율을, 행을 배운다. 개성은 평등하여서 행함 없이 행하는 까닭은, 사람의 불성은 평등하여 마음과 상이 없는 까닭에 견고한 용맹이 스스로 생긴다. 정진은 평등하여 마음과 행을 스스로 세우지 않는 것이 일상삼매 행이며, 평등선정이다. 지혜로운 마음은 평등한 고로 생각하는 바 없이 법주(法住)에 나는 것이며, 말과 정(定)이 두루 하여 둘로 보지 않고 모든 신통을 스스로 굴리며, 신통은 세울 바 없이 평등하여 말이 구족하며, 법의 뜻이 두루 하며, 법계가 평등하여 끄달리지 않는다.

게으르지 않고 한마음의 법을 내어 중생들을 평등한 심성으로 이끌어 청정한 마음으로 함이 없이 이끌어 주며, 함이 없이 이끌어 가는 그 사실이 바로 이름해서 삼십이상이 구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살계를, 보살계율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데 우리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며 그대로 계율이며, 그대로 함이 없이 하며 보살행으로서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갸륵하고 얼마나 거룩한지….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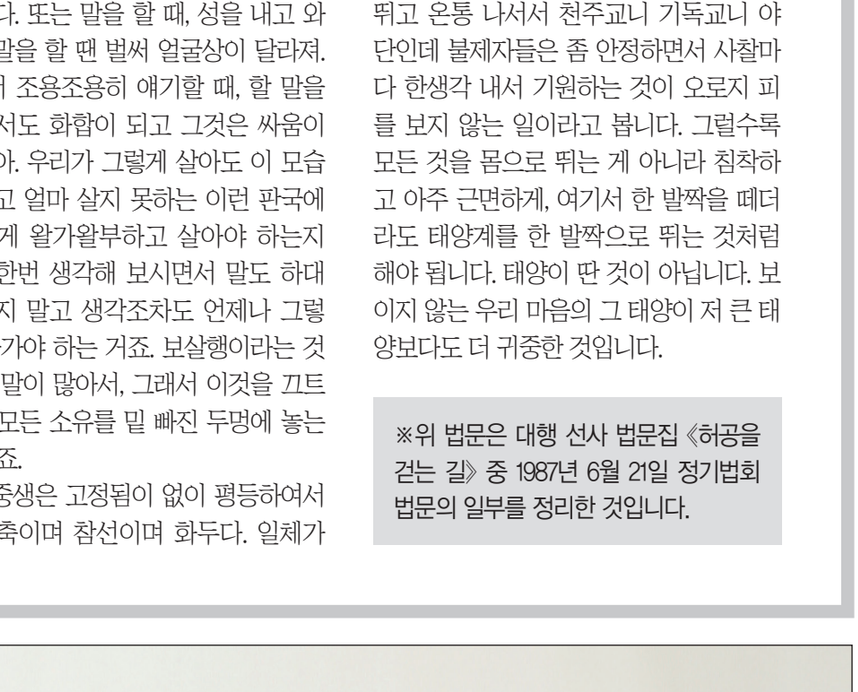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살행을 해서 법도를 안다면 우린 우주하고도 섭리가 같이 통하기 때문에 어떠한 거든지 둘이 아니라, 둘이 아닌 까닭에 바로 나가 있고 너가 있고, 바로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돼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도리를 알게 되면 정말이지 우리는 좋은 이 바닥에서, 예전에 삼국 통일 했듯이 부처님의 뜻이 이어져서 우린 통일을 할 것입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배우는 여러분도 그렇고 또는 은연중에 모든 불자들도 그렇고 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냥 목숨을 걸고 육신으로 뛰고 온통 나서서 천주교니 기독교니 야단인데 불제자들은 좀 안정하면서 사찰마다 한생각 내서 기원하는 것이 오로지 피를 보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럴수록 모든 것을 몸으로 뛰는 게 아니라 침착하고 아주 근면하게, 여기서 한 발짝을 떼더라도 태양계를 한 발짝으로 뛰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태양이 딴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그 태양이 저 큰 태양보다도 더 귀중한 것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7년 6월 21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